

박상우 장관, “동계청소년올림픽 도로제설 총력 대응” 강조 - 19일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찾아 제설대책 점검 및 관계자 격려 -

-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‘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’의 원활한 대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9일(금) 오후 2시 30분 강릉국토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도로제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업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- 박 장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동계청소년올림픽 도로제설 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뒤, “신속한 현장대처를 위해 경기장 접근도로에 인력과 장비를 사전에 확보해 배치하고, 긴급한 상황에서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뿐만 아니라 조직위원회,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달라”면서,
 - “특히, 각국 선수단 및 관계자 등 1만 5천 여명의 인원이 4개 도시, 9개 경기장 등으로 매일 이동하는 만큼, 차량 통행의 안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달라”고 지시했다.
- 박 장관은 제설창고와 제설자재·장비 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한 뒤, “대형 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을 철저히 예방하고, 결빙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제설과 안전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”을 강조하면서,
 - “비상상황 시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, 교통통제에 따른 차량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우회도로를 사전 지정하는 등 비상교통 대책도 빈틈없이 챙길 것”을 주문했다.
 - 또한, “일선 직원들이 잦은 밤샘 제설작업으로 피로누적과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만큼, 충분한 휴식시간과 안전시설을 확보하여 건강과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”을 당부했다.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대회기간(1.19~2.1) 경기장 진입도로* 총 299km에 대해 종합상황실 운영, 제설자재·장비 추가 확충,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특별도로제설대책을 시행하고 있다.

* 고속도로 77km(영동·동해선), 국도 222km(홍천 16km, 강릉 91km, 정선 115km)

2024. 1. 19.

국토교통부 대변인